



tvN '갈릴레오: 깨어난 우주'

원조부터 음악·화성탐험까지

TV속 여행예능은 '진화 중'

정보 제공에 극한 체험 간접경험도

방송계의 '스튜디오'로 자리 잡은 여행 예능의 인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과거 인기 있었던 여행 프로그램이 같은 포맷으로 돌아오거나 하면, 차별화를 위해 여행에 다른 요소를 추가한 프로그램까지 탄생했다.

◇ 고전의 매력... '꽃보다 할배', '배틀트립' = tvN의 대표 여행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가 최근 네 번째 시리즈로 3년 만에 돌아왔다.

여행 예능의 원조 격인 이 프로그램은 이순재, 신구, 박근형, 백일섭과 새로 합류한 김용건, 그리고 짐꾼 이서진 등의 조합으로 첫 방송부터 9.2%(유료가구)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여행에서는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최근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과 함께 통일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까지 마련했다.

KBS 2TV '배틀트립'도 2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예인이 2인 1조를 이뤄 여행을 설계하고 대결을 펼치는 이 프로그램은 가족여행, 친구와의 여행 등 시청자들이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될 실질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도 비중 있

게 다뤄진다. JTBC '몽쳐야 떠다'와 tvN '찐내투어'는 시청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 형태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 여행+α... '이타카로 가는 길', '땡철이 어디가', '선을 넘는 녀석들' = 여행에 특별한 콘셉트를 가미한 프로그램도 있다.

15일 첫 방송된 tvN '이타카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 대표 록커 윤도현과 하현우가 터키에서 출발해 그리스의 이타카 섬까지 가는 여정을 담았다.

이들은 오직 SNS에 올린 노래 영상 조회 수만으로 여행 경비를 얻는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DNA', 워너원의 '에너제틱' 등을 커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TV조선의 '땡철이 어디가'는 게스트 하우스를 소재로 삼은 여행 예능이다. 게스트하우스를 통해 현지인이나 다른 여행자와 소통하면서 여러 명소와 맛집을 찾아낸다.

MBC TV '선을 넘는 녀석들'은 국경을 접한 두 나라의 닮은 듯 다른 역사와 문화, 예술, 글로벌 이슈까지 다룬다. 특히 역사 강사 설민석의 설명이 곁들여져 정보 제공까지 특

특하고 있다. ◇ 여행이 아니라 탐험... '거기가 어딘데??', '갈릴레오' = 여행을 넘어 탐험을 떠나는 프로그램도 강세다.

2011년 시작해 8년째 금요 예능 강자의 자리를 지켜온 SBS TV '정글의 법칙'에 이어 최근에는 사막을 횡단하는 KBS 2TV '거기가 어딘데??'까지 등장했다.

'거기가 어딘데??'는 연예인 초보 탐험대원들이 극한의 탐험지에 도전해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의 위대함을 체험하는 내용이다. 출연자들이 사막에서 뜻밖의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보이는 모습은 예능보다는 다큐멘터리에 가깝다.

15일 방송한 tvN '갈릴레오: 깨어난 우주'는 아예 지구 밖을 탐험한다.

출연진은 화성과 똑같이 만들어진 미국 유타 주 MDRS(화성탐사 연구기지)에서 일주일 동안 화성인으로서의 삶을 체험한다.

'갈릴레오'를 연출하는 이영준 PD는 최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최근 우주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우주이주, 화성 개척이다"며 "연예인들이 먼저 간접체험을 해보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화성에 간다면 어떤 문제와 즐거움이 있을지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류스타 장근석, 사회복지무원 투입

"2년을 무엇보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쓰고 싶다"

배우 장근석(31)이 16일부터 사회복지무원으로 일한다.

이날 장근석 소속사 측은 "장근석이 오늘 입대한다"며 "시간과 장소는 모두 비공개다"고 밝혔다.

앞서 소속사는 "장근석이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다"며 "입소 후 사회복지무원으로 2년 동안 대체복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장근석은 기초군사훈련



대신 사회복지무원수센터에서 복무기본교육(소양교육)을 받은 뒤 배정받은 근무지에 근무 신고를 하게 된다.

그는 앞서 지난 6일 팬카페에 입대를 알리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장근석은 "언젠가는 나에게도 주어질

시간이었고 그저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며 "남들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가게 돼서 나도 당황스러웠지만,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질 2년의 시간을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쓰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어렸을 적 데뷔해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가져본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장근석은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기억해. 잠시 쉬어가는 거야. 다들 몸 건강히 지내고 아프지 말고. 사랑한다. 바람 피면 죽인다"고 남겼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인스타그램 NO1 사주솔루션 더.사주

속 시원한 사주풀이 더.사주가 책임집니다!

7월 17일 (음력 6월 5일)

www.instagram.com/the.saju KAKAOTALK : themaj

THE 사주



子

60년생: 노력했던 것이 무너지 수도 있다. 72년생: 객관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4년생: 설레는 일이 생기니 의욕이 솟는다. 96년생: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지 말고 직접하라.



午

66년생: 감정 기복이 심해 다툼이 쉽게 난다. 78년생: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 생기는 날이다. 90년생: 보던 불수록 좋은 사람이 생기는 날이니 주변을 잘 둘러보면 좋겠다.



丑

61년생: 이전 실행에 옮길 단계니 움직이자. 73년생: 일적인 미팅이 있다면 꼭 참여하라. 85년생: 기대한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97년생: 과분한 사랑에 감사할 줄 알자.



未

67년생: 본인이 생각한 것이 모두 옳게 아니니 귀를 열고 경청부터 해보라. 79년생: 사랑하는 이와 차한잔의 시간을 갖자. 91년생: 기회가 아직 남았으니 낙심하지 마라.



寅

62년생: 경솔한 행동으로 행운이 달아난다. 74년생: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피로해진다. 86년생: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라도 일단 참자. 98년생: 추억을 회상하며 웃을 일이 생긴다.



申

68년생: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일찍 귀가하라. 80년생: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잘 대처하라. 92년생: 부탁을 들어주면 반가운 소식이 있다.



卯

63년생: 항상 조언을 구하고 협력하길 바란다. 75년생: 하던 일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87년생: 자신감이 있으니 일이 술술 풀린다. 99년생: 여행도 좋으니 다른 장소로 가보라.



酉

69년생: 능력이 떨어질 때는 쉬어줘야지만 들어오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 81년생: 뜻 밖의 재물은 고민 말고 저축해둬라. 93년생: 미래를 위해 정찬에 약해지지 마라.



辰

64년생: 고민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 된다. 76년생: 애정표현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88년생: 구설을 경계하며 입을 무겁게하라. 00년생: 노력없이 계획을 지킬 수는 없다.



戌

70년생: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82년생: 불화를 풀려도해도 자업자득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94년생: 건강을 잃어가며까지 끌려다니지 말자.



巳

65년생: 흥분한 기분으로 여유를 만끽하라. 77년생: 착가인 걸 깨달았을 때 더 침착하라. 89년생: 힘들더라도 하던 일을 멈추지 말자. 01년생: 좋은 결과로 기분이 들뜨는 날이다.



亥

59년생: 부탁을 거절하려면 정중하게 하자. 71년생: 꿈은 반대니 움츠려 들지 않아도 된다. 83년생: 직접 만나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한다. 95년생: 믿음을 가져야만 다툼이 줄어든다.

보호와 사랑으로 행복을 찾아주세요

행복한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전남도민일보